

■ ■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0년도 세워진 일꾼들과 재정을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코로나19 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사무처리회를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9.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0.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1.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헤브론 장로 교회 - 이용일 목사

■ ■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Peter An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등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역
- ▶ 샤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해외 선교 지역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0년 5월 3일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55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수요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유년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금요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월-토 / 6:00AM / N-202

www.tfbc.org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에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한어부 예배 오전 10:50

인도: 전우일 목사

*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소원”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주의 은혜라”

* 합심기도

기도 권민정 전도사

봉헌/성가대찬양 “찬양의 심포니”(혼성 중창 녹화 10/13/2019)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요한복음 21:1-14**

제목 **“예수님의 맞춤 회복 프로젝트”**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응답찬송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 ■ ■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 본문: 누가복음 24:11-14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글로바와 어떤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으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직접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진짜 봐야 할 ‘참 진리’이신 주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은 어떠한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무언가에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야 [참 제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오늘 눈이 가리워져 있던 글로바처럼, 육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 밖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 [부활의 증인]이 시작되는 Turning Point(30-32)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장인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역사
가 시작 됩니다. 즉,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절에 드디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
아보게 되어 고백합니다. “**저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
냐**”.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을 깨닫게 되었
고, 마음이 뜨거워 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
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밤새 눈물 흘리며 마음을 읽어내려가고, 찬양 가사 하나 만으로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던 그 시절이 언제였는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이전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그래서 지금은 잠시 뜨겁지 않아도
말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 삶에서 해결 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들, 나를 또 다시 ‘고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록 만드는 반복되어지는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뜨거움]을 잃어버려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뜨거워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아닙
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추종했던 그 예수, 세상의 힘든 사정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예수가, 갑자기 십자
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좌절과 절망에 싸여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들이었습니
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실패와 좌절을 맞보는 시간처럼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등...가뜩이나 힘든 이 세상에, 이제는 코로
나까지 겹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인생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느끼며, 얼굴에 슬
픈 빛을 띠고서 한 숨만 깊게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 버린듯 여겨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리우려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별거 아니라고 유혹합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심지어 부활주일도 별거 아니게끔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때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제자들
처럼, 우리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부터 뜨거움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제자가 그랬듯이 각자의 인생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서 15장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
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과 같이, 이 기간에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
는 그 자리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부활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뜨거워진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이 증인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묵상 질문]

1.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2. 최근에 무엇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3. 주님의 제자로서 코로나 기간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단 바로 보기 ③

시한부 종말론과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한국인 남녀를 각각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한다. 설립자인 안상홍과, 1985년 안상홍 사후 후계자로 등장한 장길자가 그 주인공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 가사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바꿔 부르고, 어린이들에게는 "십자가를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예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에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라는 노래도 가르친다.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에 기초해 꾸준히 교세를 확장해 왔다. 그들은 '1988년은 세상 종말'이라고 주장하는 전단지들을 배포했고, 1999년과 2012년도 '종말의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반복적인 시한부 종말 주장의 실패에도, 교세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하나님의교회 신도 수는 수십 만 명에 이르는데, 그 연령층이 대부분 30~40대라고 한다. 또 재산은 3~4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재산이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님의교회는 해외에도 다수의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선교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반드시 왼손이 알게하는' 홍보 전략을 구사한다. 가가호호 방문과 거리 포교 등의 직접적이 포교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성격을 감춘 채 지역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노출을 시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교회를 공격하며, 타락한 교회의 대안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섬김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위기감을 조장하는 '이단 하나님의교회'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
생명의 삶 2018년 4월호에서 발췌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인 도 자

제 목 [그리스도안에서의 참 자유 시리즈 8]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 경 본 문 갈라디아서 3:9-14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 ■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한어부 권민정 전도사 수요 인도자	수요 인도자
주차장	권태운, 권경수, 이광우, 임성남, EM (2,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정순애, 박순덕, 박순자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핏서, 김정숙 헌금: (1부) 철옥핏서, 정자얼프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주, 이성호, 이호영, 이다니엘	
주일오찬 봉사	5/3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5/10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5/17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 ■ ■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2020년 5월	2020년 6월
10(주일)	어머니 주일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VIP 6주 과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SERVING CHURCH

섬김이 · 문화가 · 되는 · 교회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교회는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월 4일(수)부터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회 내의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주지사의 행정명령 동안에는 교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일 예배 장소를 각 가정(집)으로 변경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인터넷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드리고, 새벽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영어부 9:20/ 주일 한어부 10:50/ 수요일한어부 7:00)

※ 다음세대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우리교회 표어는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 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 주일 예배는 Mother's Day(어머니 주일)로 영어부는 오전 9:20에, 한어부는 오전 10:50에 인터넷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드립니다. (연합예배가 아니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일예배를 5월 첫주 수요일(5/6)부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유튜브로 수요일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기도의 날 (5월 7일 목요일): 매년 5월 첫번째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COVID-19 대유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C-Drive: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을 돕는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 기부물품 후원: 화장지, 생수, 음식 캔, 손세정제, 마스크, 라면, 쌀 등
 - 항목 현금: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한인침례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항목 현금
 - C-Drive 사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안내: 아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현금: 우리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용카드와 데빗카드로 현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현금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금액 x 2.69% + \$0.30)
 - 우편 현금: 우편을 이용하여 교회로 보내주세요. 되도록 체크(Check)로 현금해 주시고, 이름과 항목을 현금봉투에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 주일 현금 계수는 당분간 2주에 한 번씩만 합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아 놓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TFBC 예배 캠페인: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배 드릴 장소를 미리 정하여 정돈하기
- 예배 10분 전부터 함께 앉아 기도로 준비하기
- 평소 주일과 같은 복장으로 예배 참여하기
-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 새벽예배 설교

말씀묵상을 돕기 위하여, 새벽예배 한어/영어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예배는 없습니다.

◇ 생명의 삶 5/3(주일) 주간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5/4(월)	신명기 13:1-11	전우일 목사	5/5(화)	신명기 13:12-18	전우일 목사
5/6(수)	신명기 14:1-21	정주영 목사	5/7(목)	신명기 14:22-29	정주영 목사
5/8(금)	신명기 15:1-11	남궁곤 목사	5/9(토)	신명기 15:12-23	남궁곤 목사

※ 전교인 Q.T 운동: 매일 새벽 생명의 삶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새벽설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중보: Eric Mose, Kiai Jeppesen, Conard Goering, Tom Bradley, Donald Horton, 양레깅스, 성경 앤브리, 김정분, 박화숙

■ ■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주일 금 주 정순애(생일)
오찬 다음주 왕가동(결혼기념 45주년)

※ 2020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한 그루 나무 심기란, 교회 주차장 및 배수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작정현금이며, 1,200불로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는 비유로 작정예물을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작정현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998그루/\$1,197,600
현 현금액: \$1,196,906